

# 연금시장리뷰

##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그린 바이오 산업 현황

경제 이슈: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

## 세심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

## Book Review

2033 미래 세계사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가계부채 1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중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980.0조 원으로 1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 가계부채 규모: 가계부채는 2012년 말 963.8조 원에서 2013년 1/4분기 963.1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재차 전분기대비 16.9조 원 늘어난 980조 원을 기록
  - 증가 원인: 취득세 감면 조치와 전세대출 한도 확대 등으로 주택대출이 크게 늘어 가계대출이 전분기대비 17.5조원 증가한 데 기인. 반면, 판매신용은 0.6조원 감소한 53.3조원을 기록
- 가계부채는 주택구입 지원 확대, 전세가격 상승 및 이사철 가계대출 증가 등 계절적인 요인까지 가세하며 올해 말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 금융 동향: 신흥국 경제 위기설과 시리아 사태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

- 인도 등 이머징 국가의 경제 위기 가능성과 시리아 공습이 임박해 짐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부각되면서 안정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8일 2.92%에서 8월 29일 현재 2.93%로 0.01%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8월 8일 1,113.0원에서 8월 29일 현재 1,109.7 원으로 3.3원 하락
  -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8월 8일 1,883.9에서 8월 29일 1,907.5로 23.6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8/8	8/29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sup>p</sup>	2.3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8	-0.9	-2.7	-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1	1.0	1.4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1	3.1	3.1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198.0	72.4	67.7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67	2.92	2.93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22.8	1,113.0	1,109.7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863.3	1,883.9	1,907.5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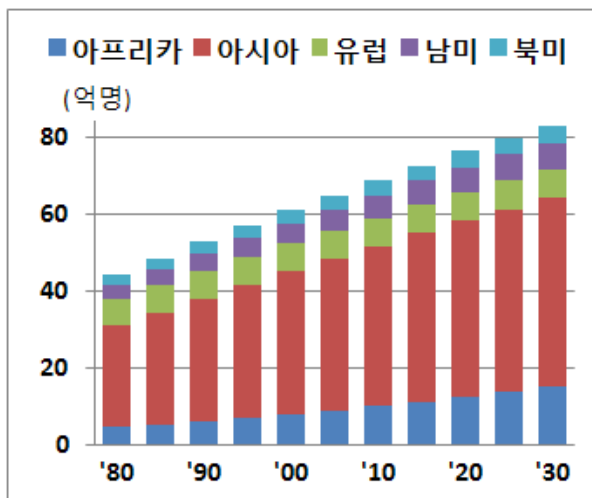
2) 실물지표 중 8월 8일은 6월, 8월 29일은 7월 수치임.

## □ 산업 이슈: 그린 바이오 산업 현황

### ○ 그린 바이오(Green-Bio) 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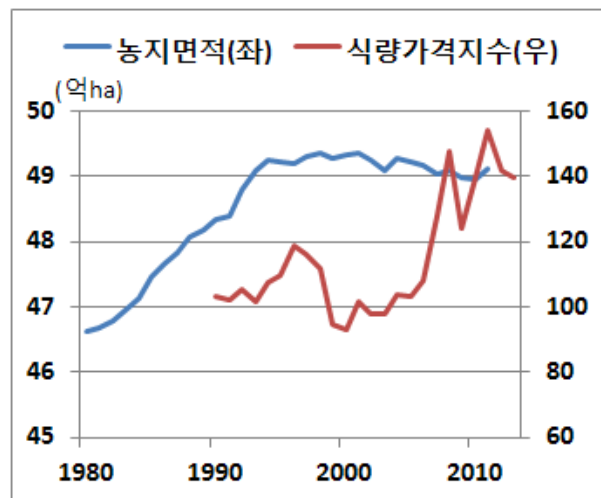
- (정의) 그린 바이오 산업은 농·축·수산·임업 등 1차 산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식품,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분야
  - 농업유전자원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 우수 품종 육성, 소재 식물 대량생산, 기능성 신물질 추출 등을 위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
  - 농업 관련 '그린 바이오'는 의약 관련 '레드 바이오', 산업 관련 '화이트 바이오'와 함께 바이오(BT) 산업의 3대 축을 형성
- (중요성) 식량 안보의 중요성 증가, 생물자원의 상업적 가치 증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의 이유로 차세대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
  - 인구증가,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 증가
  - 나고야 의정서(ABS) 발효에 따른 생물자원의 상업적 가치 증대
  -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한 기술집약적 지식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세계 인구 추계 >



자료:UN'WorldPopulationProspects2010'.

< 세계 농지면적 및 식량가격지수 추이 >



자료:UN FOA.

○ 시장 현황

- (시장 규모) 국내 그린 바이오 시장 규모는 2.7조원, 연평균 15.0% 고성장
  - 세계 그린 바이오 시장 규모는 87.5 조원, 연평균 성장률은 11.1%로 높은 수준
- (산업 트렌드) 공공부문의 투자가 확대되고, 정보화 및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발효 및 배양 분야가 유망할 전망
  - (공공부문 투자 확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 식량,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
  - (정보화 및 빅데이터 활용) 다양한 화학물질 및 생물유전자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경쟁이 치열
  - (발효 · 배양 분야 유망) 대장균, 효모 등을 활용한 발효 및 세포 배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연구가 활발

## □ 경제 이슈: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sup>1</sup>

### □ 최근 가계부채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대출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다.

### □ 가계부채 위험 수준의 평가

-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또는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등 상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재 상태에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를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위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가계부채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가계부채 위험을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으로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각 3개씩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압박 부담'의 변수로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중, 연체율 그리고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한편 소득과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한 상환 능력도 중요한 가계부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가계 실물자산 등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통계적으로 표준화된 변수들을 가중 평균하여 종합적인 가계부채 위험을

<sup>1</sup>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36호, 2013. 8. 21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을 요약 정리.

추정하였다.

- 추정결과 '압박 부담'은 금융위기 직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상환 능력'은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다. 한편 이 둘을 합친 가계부채 종합 위험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등하였으나, 곧바로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하락하였다. 2011년 이후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비은행 대출 비중 증가 등 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위험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위험이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시사점

- 비록 양적인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과 더불어 경제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부담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저축 제고를 통하여 가계수지 흑자율 제고가 시급하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하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02-2072-6216, dbpark@hri.co.kr)

□ 이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

□ 요약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인구규모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14%인 7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통계청). 베이비붐 세대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직면해야 했던 위험과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같이 떠 았게 되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후 생활은 길어지고 있지만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경제제도로 노후생활에서 경제적 불안을 벗어나기 어렵고 삶의 보람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은 퇴직 후에도 재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까지 약 20여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차 대전 직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를 위해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이려면 베이비부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한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 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상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실용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준비된 귀농·귀촌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것이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해외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보건의료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할 수 있는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사업' 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사업의 퇴직 의료인력 활용 등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고령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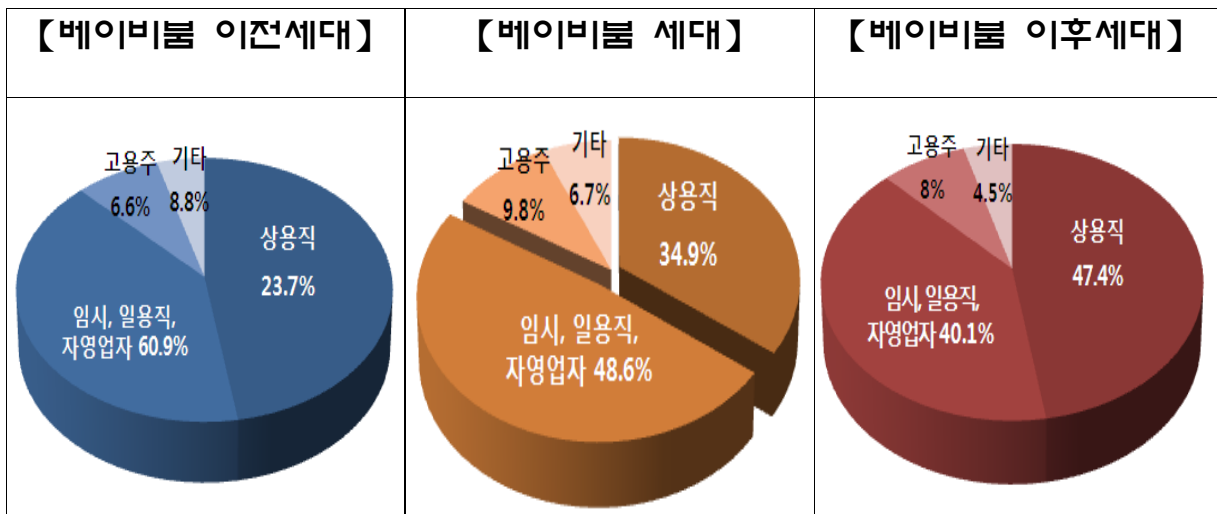
1. 베이비붐 세대 현황

○ 베이비붐 세대는 거대 인구집단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며, 경제의 충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고졸이상이 약74.6%임을 감안할 때 높은 교육수준

○ 베이비부머의 고용현황은 불안정한 고용상태

- 고용현황은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고용률 75.5%로 이전세대의 59.5% 보다 높고, 이후세대의 76%와 유사
- 취업자 중 상용직은 34.9%인데 비해,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는 48.6% 수준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1>

○ 경제상황은 총자산의 80%가 부동산

- 베이비부머들은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이며, 전체 가구 평균보다 소득 및 자산이 높지만 총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자산의 유동성에 제약
- 총 자산의 80%가 부동산, 이중 약 63%가 주택자산임.
- 자녀 및 부모부양, 은퇴 자금 등에 부담을 느끼며, 절반 이상이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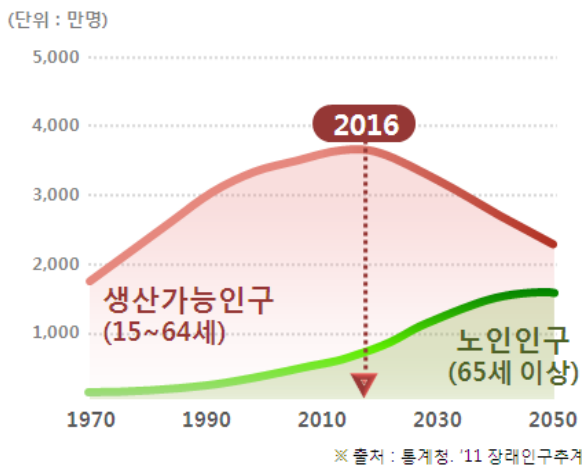
○ 주된 일자리에서 매년 약 15만명 퇴직전망

- 베이비부머들이 '10~20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매년 약15만명 퇴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10~'15년 은퇴자 53만명, '15~'20년 은퇴자 98만명 예상
- 퇴직 후 대부분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희망하지만, 고령자 고용기피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과 창업실패로 노후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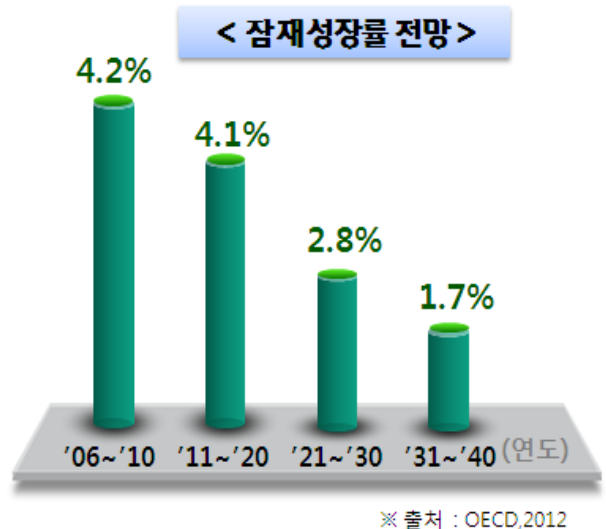
2.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 파급 효과

○ 노동인구 부족 현상 발생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력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악화 초래
- '10~'15년 은퇴자 53만명, '15~'20년 은퇴자 98만명 예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2016년부터 감소 시작



○ 미흡한 노후준비로 인한 자산시장 변동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부채비율과 부동산 보유 비중으로 인해, 은퇴 후 유동성 압박에 따라 자산처분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된 1990년, 미국은 2007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

○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 베이비붐 세대 상용근로자 은퇴로 총7조7천억 세수 감소 전망('09년 현대경제연구원)

-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08 년 대비 '20 년 총지출 37%, 총세입 15% 증가, 재정수지 35 조원 악화('09. 국회예산정책처)

### 3.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그간의 정부 정책

#### ○ 제 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베이비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최초 정부 정책에 반영('10년)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후설계강화 등 4 대분야, 36 개 과제를 포함

#### ○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 보완방안 수립('11 년)

-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 보완방안 수립으로 고용연장, 사회공헌, 노후소득보장 등 3대분야, 30개 과제 추진

#### ○ 베이비붐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확대

-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정책대상으로 확대하고, 정책 의제 인식 및 사회적 관심 제고, 고령자 고용지표 개선 등 일정 성과는 도출
-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 고령자 채용기피 관행 등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
-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음식, 도소매 등)에 치중하며, 창업후 생존율이 낮은 상황
- 자원봉사 참여 희망률은 높으나, 특화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참여율 14%에 불과. 특히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 보건의료기술 전수로 개인의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국격에도 걸맞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미흡

### 4.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정책과제

#### ○ 생애후반기 자립기반 조성

- 생애 후반기 설계 지원 강화
-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신규 취업 창업 전직 등 생애전환기별 1 회 이상 노후설계 교육이수를 유도함으로써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준비율
- 개인별 욕구 및 경력 분석과 노후준비 정도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노후설계 지원서비스 제공
- 통합정보 제공 기반 구축
  - 퇴직 후 인생준비와 관련된 모든 정부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포털을 구축하여 기관별로 분산 제공하던 베이비부부세대 관련 지원정책 및 자료 등을 통합 제공하는 가칭 '베이비부부종합정보포털' 구축 운영할 예정

○ 함께 더 오래 누리는 일하는 기쁨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 50 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 2 의 생애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
- 베이비부부 세대 취업 능력 향상 지원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장년근로자가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도 도입
  - 저소득 미취업자에게는 단계별(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연수 희망 구직자에게는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게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함께 일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 능력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모집 등의 각종 연령 규제 개선, 고령자의 사업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연령규제를 두어야 할 경우는 연령규제 상한 완화 추진

○ 경륜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삶

- 경력기반의 창직 여건 조성
  -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정보와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창업 지원 제도(시니어 비즈플라자)를 확대하고 시니어 플라자를 중심으로 베이비부부 세대의 사회경력을 활용한 공동창직 활동을 지원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정확한 상권 정보를 온라인(상권정보시스템)으로 제공,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소상공인 특화교육이 가능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교육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창업 지원을 내실화

○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 One-Stop 정보 제공 및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실시
  - 귀농·귀촌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실용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준비된 귀농·귀촌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 정착을 지원

○ 재능을 나누는 보람된 삶

- 나눔 프로그램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 자신의 지식·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 확대,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단체 등에 마케팅, 재무관리 컨설팅 등 전문지식과 경험, 지식 등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재능나눔 및 스포츠 여가 프로그램 확대를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 추진체계 정비 및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 확대
  -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기반으로 베이비붐 세대 드림봉사단을 구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로 기능
  -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의 중장기자문단 및 퇴직전문가 사업의 파견인력 점진적 확대를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
  -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기술 전수, 교육, 정책 자문 등에 퇴직 의료인력을 활용할 예정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변루나 행정사무관(02-2023-8445, Inbyon@korea.kr)

## □ 洗心錄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

① 갑과 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순서나 우열을 나타낼 때, 첫째와 둘째를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풀이해 놓은 '갑을(甲乙)'의 정의다. 요즘 갑과 을의 문화, 또는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주로 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이 대부분이다.

갑을의 어원은 동양철학의 근원인 60갑자(甲子)의 천간(天干)에서 유래한다. 천간은 하늘의 시간·계절적 흐름을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辛壬癸)'의 10개로, 여기에 땅의 기운을 12개로 표현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조합하여 60갑자를 이룬다. 자연의 기운에 대한 흐름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을 뿐, 우열의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갑'은 '을'의 먼저이기도 하지만, '정'의 다음이기도 하다. 봄·여름·가을·겨울에 더 낮고 못함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본래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갑을' 관계의 뜻은 영 탄판으로 쓰이고 있다. 흔히들 '갑'은 센 놈이고 '을'은 약자로 통칭한다. 갑을 관계는 권력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성별·나이·재산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찌 보면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거져 나오는 것 같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말로 이(齒)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입술(脣)이 없으면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즉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말이다. 춘추전국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주변국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상생의 관계를 맺는 일이었다. 난세일수록 결국 상생과 공존이 경쟁력이었음을 보여준다.

계약서에서 갑을이란 낱말 자체를 없애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면 더욱 좋겠다. 최근 들어 소통의 부재를 많이 지적한다.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이 된다면 갑을은 폐해가 아닌 무한한 60갑자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신뢰하라. 그러면 그들도 당신에게 진실해질 것이다.**

Trust men and they will be true to you.

-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 □ Book Review

## - 제목: 2033 미래 세계사(휴머니스트, 2013. 1)

- 인구,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의 중요한 변화를 진단하여, 2033년 인류와 지구의 모습을 전망

## - 저자: 바르지니 레송(Virginie Raisson)

- 역사학, 국제관계학, 지정학을 전공한 국제관계 전문가
- 지정학 및 미래학 관련 민간단체인 정치지리연구소(LEPAC)를 이끌고 있음
- 저서 : 한국에는《변화하는 세계의 아틀라스》가 소개됨

## ○ 주요 내용

- (인구) 미국은 인구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슈퍼파워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반면, 일본과 유럽은 인구감소로 인해 세계 정치판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가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세계 정치와 인구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임
  - 중국은 인구 고령화가 우려됨. 1980년대에 급감한 출산율로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어 일본보다 두 배 빠르게 진행될 것임
- (이민) 앞으로 수 십 년간 국제 이민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중국과 인도는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 디아스포라의 규모, 유용 노동력 등을 고려하면 한동안 국제 이민의 흐름을 좌우할 것임
  -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외환 보유고를 채울 수 있는 주요 수입원인 이민자의 송금액은 국가의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부채를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 됨
  - 하지만 국제 이민을 뒷받침할 메커니즘이 부재하면 장기적으로 국경 지대의 범죄율 증가, 이민자들의 취약성 심화, 국가의 잠재적 이익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
- (도시화) 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도시를 경제성장의 요람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는 반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 도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도시는 기후변화 방지에 점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식량과 농업)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25억이나 추가로 늘어날 것이며 전체 식량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식량 생산을 약 70% 증대시켜야 함
  - 최상의 땅은 이미 경작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경작이 되지 않은 땅에서 식량 생산이 막대하게 증가하리라는 전망은 불투명
  - 지구온난화로 제고된 생산성이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
  - 생물공학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막지는 않되, 합리적인 예방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물) 담수(淡水)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나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은 줄어들고 있으며, 절대적인 양보다는 편재성과 접근성이 더 문제
  - 세계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담수의 평균 가용량이 감소함. 1950년 1인당 1만 6,800m<sup>3</sup>에서 2008년 6,500m<sup>3</sup>, 2050년 4,800m<sup>3</sup>로 감소할 전망
  -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으나 담수 자원의 분포율은 36%에 불과한 반면, 라틴아메리카에는 세계 인구의 6%가 살고 담수 자원의 26%가 집중
- (에너지) 피크오일(Peak Oil)의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석유가 고갈될 것에 대비해 생활방식과 사회 전반을 바꾸는 막대한 투자는 필요함
  - 생물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개발은 피크오일과 원유 가격 폭등 이후(배럴당 200달러)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 (고갈의 징후)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바이오 연료의 숨겨진 비용
  - 생물 다양성은 생태학적 다양성(생태계), 특성의 다양성(생물종), 유전적 다양성(각 생물종 안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아마존 밀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이 보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산림 파괴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함
- (기후) 온실기체 농도를 증가시킨 책임은 산업선진국에 있으나 정작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 개발도상국들임
  - 온실효과 완화와 적응의 노력을 기울이면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은 세계 GDP의 1~2%에 그칠 수 있을 것
  - 그러나 2050년까지 기온이 2°C 이상 상승할 경우 세계 GDP의 5~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영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영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